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30(금) ~ 2025.6.5(목)

제공일시 2025 6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30(금) ~ 2025.6.5(목)

제공일시 2025 6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트럼프 철강관세 50%로 인상 예고에 철강업계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의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배로 올리겠다고 밝힘

- 이미 부과 중인 25%의 관세만으로도 핵심 시장인 미국 수출에 큰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긴장하면서, 향후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을 경우 사업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디지털타임스 2025.5.31\)](#)

2. EU,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유예안 최종 확정... "3년 평균제 도입"

-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사의 탄소배출 규제를 2025~2027년 동안 '3년 평균 기준'으로 완화 적용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함

- 이에 따라 각 제조사는 연도별로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3년간 평균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됨

- ESG 전문매체 ESG투데이는 27일(현지시각)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가 해당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도함. 해당 규정은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게재된 후 20일 뒤 발효됨

[\(임팩트온 2025.5.30\)](#)

3. "나도 너희 사이에 끼면 안될까"... 반도체 강대국 라인업에 들고 싶은 싱가포르

- 싱가포르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음. 싱가포르가 후공정과 전력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카바이드(SiC)를 앞세워 '6번째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3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 산하 과학기술연구청(ASTAR)은 최근 세계 최초로 200mm(8인치) 산업용 실리콘카바이드(SiC) 오픈형 연구개발(R&D)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함. 이 라인은 소자 제조부터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 공정을 통합한 개방형 플랫폼임

- 이번 프로젝트에는 독일 센트로썸, 프랑스 소이텍, 일본 도레이, 네덜란드 ASM을 비롯한 글로벌 소재·장비 기업이 협력사로 참여함

[\(매일경제 2025.6.3\)](#)

국내 정책

1. 李 AI·반도체 첫 메스 기대... 100조 투자·RE100 인프라 입법 가속

- 인공지능(AI) 산업을 10대 핵심 공약 중 1순위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됨
- 공약 중 AI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특별법, 세액공제, RE100(Renewable Energy 100%) 인프라 구축 등은 이미 입법·행정 준비가 진척돼 있어 당장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현재 AI 분야는 GPU 대량 조달과 데이터센터 구축, 규제 특례 등을 포함한 인프라 확대 계획이 구체화돼 행정 절차를 거치면 착수가 가능함
-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통과만 남은 상태이며, 세액공제와 RE100 전환 등의 정책은 기존 제도 틀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구조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6.4\)](#)

2. 해수부, 동남아 노후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 선점

-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3일 밝혔
-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임
- 현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할 예정임

[\(데일리안 2025.6.3\)](#)

3. 환경부 “LCA 산출 방법 국제 규제 예의 주시”... 중소기업사 지원 논의

-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관련 국제 규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완성차 제조사·자동차 부품사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전함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 개최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포럼’에서 LCA에 대한 국외 정책 동향과 국내 중소기업사 지원 정책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
-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소기업공급사 대상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완성차 제조사·부품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끔

[\(전자신문 2025.5.31\)](#)

글로벌 기업

1. 메타, 'AI 전력난'에 원전 선택... 美콘스텔레이션과 장기계약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Constellation Energy)와 20년간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
- 메타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7년 6월부터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콘스텔레이션의 클린턴 청정에너지 센터(Clinton Clean Energy Center)에서 약 1.1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구매할 예정임
- 해당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콘스텔레이션은 추가 원자로 건설 계획도 검토 중임

[\(아시아경제 2025.6.4\)](#)

2. RGE-토탈에너지스, 인도네시아에 합작 태양광 프로젝트... 아세안 전력 연계 추진

- 싱가포르 RGE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가 인도네시아 리아우주에 태양광 발전소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을 공동 개발함. 양사는 5월 28일 공동 투자 계약(Co-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함
- 이번 프로젝트는 양사가 50:50으로 출자한 합작법인 '싱가 리뉴어블즈(Singa Renewables)'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됨. 리아우주 내 친환경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잉여 전력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구조로 설계됨

[\(임팩트우 2025.5.29\)](#)

3. TSMC, 중동 진출하나... 블룸버그 "UAE에 첨단 생산시설 검토 중"

- TSMC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첨단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TSMC는 UAE에 월 10만장 이상의 대규모 거점인 기가팍(gigafab)을 건설한다는 계획임

[\(블로터 2025.5.31\)](#)

4. AWS,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 AI-클라우드 수요 대응

-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데이터센터를 추가 확장해 글로벌 AI-클라우드 인프라 강화에 나섬. 1일 벤처비트 등 외신에 따르면, AWS는 올해 초 멕시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개설 후 칠레,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대만에 추가 시설을 지음
- 현재 센터 내 AI 연산 능력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최신 반도체 GB200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지디넷코리아 2025.6.1\)](#)

국내 기업

1. 삼성SDI, 美 LFP 투자에 시작되나... GM·스텔란티스 투자·전환설 '솔솔'

- 삼성SDI가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하는 법인에 각각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섬
-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눈을 돌리는 한편 중·저가용 전기차 대응책을 미리 세워 접근하겠다는 의도임
-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SDI는 GM과 잇는 합작법인 발주에 LFP 배터리용 설비를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까지는 내부 검토 정도 수준 단계로 실질적인 변경 계획으로는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디지털데일리 2025.5.30\)](#)

2. 현대차그룹, 휴머노이드 국제표준 만들어 상용화 속도 낸다

- 현대차그룹의 로봇 주력 기업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표준 제정에 처음 나선 것으로 확인됨
- 3일 기계 및 표준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최근 미국 첨단자동화협회(A3) 및 어질리티로보틱스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균형 유지형 로봇(self-balancing robot)'에 대한 안전 표준안을 제출함. 현재 ISO의 로봇공학 담당 위원회인 TC299가 초안을 심사하고 있음

[\(서울경제 2025.6.3\)](#)

3. 솔루스첨단소재, 세계 배터리 1위 中CATL과 전지박 공급계약

- 솔루스첨단소재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업인 중국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2일 밝힘. 이번 계약으로 솔루스첨단소재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전지박을 2026년부터 유럽에 위치한 CATL 배터리 공장에 공급함
- 양사는 솔루스첨단소재의 현지 전지박 공급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신제품 개발 협업 가능성도 열어둠

[\(매일경제 2025.6.2\)](#)

4. 한화세미텍, 북미 반도체 기업고객 확대... 플래시PCB에 SMT 시스템 공급

- 한화세미텍이 미국 반도체 스타트업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함. 북미에서 잇따라 대표 제품인 표면실장기술(SMT) 장비 공급 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현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4일 인쇄회로기판(PCB) 조립업체 플래시PCB(FlashPCB)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한화세미텍 미국법인으로부터 SMT 기기 'SM481'과 'SM482'를 공급받았다고 발표함

[\(더구루 2025.6.4\)](#)

美 대법원, 유타 원유 철도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 미국 연방대법원이 유타주 원유 수송 철도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지방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음
- 가디언지는 30일(현지시각) “대법원이 유타주 유인타 분지(Uinta Basin)와 기존 화물철도망을 잇는 총 142km 길이의 신규 화물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EIS)는 적정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구두변론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왔으며, 보수·진보를 막론한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임. 이로써 해당 철도 건설은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됐고, 향후 미국 내 에너지-인프라 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문제의 철도는 유타주 유인타 분지에서 추출되는 점성 원유(waxy crude)를 외부 정제시설로 수송하는 수단임. 하루 최대 35만배럴의 원유가 철도를 통해 텍사스·루이지애나 정유시설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4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업 주체는 유타주 7개 카운티와 민간 인프라 투자사들이 연합한 ‘세븐카운티 인프라연합(Seven County Infrastructure Coalition)’임. 이들은 2021년 연방표면교통위원회(STB)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15개 주와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특히, 콜로라도주는 철도 노선이 콜로라도강 상류 인근을 통과함에 따라 유출·화재·충돌 등의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음
- 환경단체인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와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는 “이 철도는 지역사회 동의 없는 또 하나의 기후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음
- 이번 대법원 판결은 NEPA(전미환경정책법)의 해석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국면을 뒤집었음. 해당 철도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기관은 사업의 직접적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며, 미래 파생 프로젝트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음
- 즉, NEPA는 ‘절차적 점검’에 불과할 뿐, 환경적 유해성 여부를 규제하는 실질적 장치는 아니라는 취지임. 이는 지난 50여년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임
- 판결 직후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음. 생물다양성센터의 웬디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경법의 근간을 흔들며, 연방기관의 책임을 흐린다”고 주장했다.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샘바브 산카르 부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 판결을 기반으로 환경규제를 무력화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더욱 밀어붙일 것”이라고 경고했음
- 반면, 세븐카운티 인프라연합의 키스 히튼 국장은 “이번 판결은 유타 농촌 지역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음

- 이번 판결은 사업의 최종 승인이란보다 향후 심리를 위한 방향 설정이라는 점에서, 사건은 다시 D.C. 연방항소법원으로 환송되어 후속 절차를 밟게 됨. 환경단체들도 “법적 대응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철도 건설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임

[\(임팩트온 2025.6.2\)](#)